확신은 미신이고 명언은 망언인 상황

(열왕기상 20:22~30)

22.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23.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24.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 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25.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확신은 미신이고 명언은 망언인 상황>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확신은 미신이고 명언은 망언인 상황'
어떤 상황에서는 확신이지만 맹목적인 믿음인 미신이고, 공감을 불러일으킬만한 명언인데도 알고 보면 망언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미신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비과학적이고 종교적으로 허락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것이나 그러한 신앙을 가지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복(占卜)이나 굿, 금기 같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시험을 볼 때에 미끄러워서 떨어질까 미역국을 먹지 않는 등의 일입니다.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과학적인 미신의 정의는 온전히 미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뉴턴의 세계관에서는 시간과 공간은 절대불변하다고 믿어 왔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이론을 발표하면서 시간과 공간은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까지 시간과 공간이 절대불변하리라고 믿었던 우리의 믿음은 타당하지 않은 근거 위에 세워진 미신이었다는 것이 됩니다.
과학은 새로운 이론에 의해서 대체되기 전까지만 과학적 진리가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다른 이론이 나와서 대체한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제일 우스꽝스러운 미신 중의 미신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인데 그 미신을 신봉하는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성서적으로는 미신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열왕기상의 마지막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흘러가고 있는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승리 뒤에 승리 후유증에 걸려버렸습니다. 이세벨의 반응을 생각하는 바람에 마음과 몸이 다 나락으로 떨어져서, 곤비한 상태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즉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다는 말씀을 출발점으로 해서 이 맥락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레 소리로 들릴 정도로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나아가 있느냐를 확인했습니다. 우레 소리는 다른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승리 때문에 순간적인 착오였지만 마음을 땅에 붙이는 바람에 이세벨의 소리가 산을 가르고 바위를 깨는 강한 바람 소리처럼 들렸던 것인데 이렇듯 하나님의 음성을 우레 소리로 듣는 것을 염두에 두고 미신을 정의해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차단된 상태에서 갖게 되는 인간의 모든 확신과 모든 명언들은 다 미신이고 망언입니다. 정말 틀림없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서 확신을 갖고, 손뼉을 치게 할 정도로 속이 시원해지는 공감을 일으키는 명언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다 망언이고 미신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태에서 생기는 확신이고 나타나는 명언이라면 그것은 미신이고 망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아람 왕 벤하닷이 패하여 도망하게 되고, 화가 나서 두 번째 전쟁을 일으키려고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벤하닷 왕의 모사들의 책략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패한 이유를 이스라엘의 신이 산악의 신이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고, 사마리아의 산지에서 싸웠기 때문에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특정한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신념체계는 오늘날 우리가 과학에 대해 가지는 것과 똑같은 확신의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산악의 신임을 간과하고 사마리아 산에서 전투를 벌여서 졌음으로, 이번에는 이스라엘 군대를 평지로 유인하여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승리를 확증하기 위하여 아람 군대의 조직편성을 바꾸어서 지휘와 명령 체계를 일원화하려고 합니다.
아람은 애굽처럼 통일된 하나의 대제국이 아닌 소규모 도시들의 군주들이 연합하여 이루었던 나라였습니다. 그 중에서 벤하닷이 지도자격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 32명의 왕이 모이다보니 혼란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사들은 이러한 체제로는 일사불란한 전투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벤하닷의 1인 지휘 체제로 군대를 바꾸기로 합니다. 또한 병력과 말과 병거의 숫자를 1차 전쟁 때의 수준으로 보충하여 이스라엘의 산악의 신을 피해 평지에서 싸우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수행하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라는 말이 23,25절에 두 번 나오는데 승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집니다.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고 아합 왕이 다스리는 시기에는 다시 쳐들어올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러한 아람의 전쟁 준비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전쟁 준비에도 패하게 되는 이유는 간단한데,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아람이 패배하도록 결정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치르려는 전쟁에 관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생각은 아람의 모사들이나 벤하닷 왕에게는 알려지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보좌로부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차단되어 있었기에 이들은 별도의 확신을 가졌는데 '이스라엘 신이 산악의 신이었기 때문에 졌다'는 확신이 생겼고 벤하닷 왕은 그 말에 공감하며 박수를 쳤을 것이고 명언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확신하고 공감되는 명언들을 많이 대합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음성으로 표현되는 일이 완전히 봉쇄된 상태에서 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확신과 공감을 자아내는 모든 명언들은 미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람 궁전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준비하는 상황을 1차 전쟁 때에 아합의 궁전의 상황과 비교를 해보면 더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람 왕과 신하들이 전쟁 준비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구상할 때에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그들에게 2차 전쟁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전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합 궁전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1차 전쟁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셨지만, 선민들이 마음을 땅에 붙임으로 벤하닷이 쳐들어온다는 사실이 마음에서 우레 소리가 되는 바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획과 생각을 전혀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궁전에서의 모든 대응을 위한 생각과 행동들은 불필요한 잉여가 되었는데 내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쓰레기 같은 생각과 행동들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선민이 아닌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음성으로 들려주시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이나 비 선민 모두를 섭리하십니다. 그러나 선민에게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과 생각을 끊임없이 음성으로 말씀하시지만, 비 선민에

게는 선민과의 관계를 고려하시면서 섭리하실 뿐, 그 음성을 인격적으로 들려주시질 않는데 이게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인 나에게는 쉬지 않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간구에 앞서 들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간구할 것조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대해 단 1초도 당신의 계획 바깥에 두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고, 그 음성을 듣다 보면 간구할 것도 없이 내가 해야 될 말과 행동들은 다 그 속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민들은 듣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쓰레기로 채웁니다. 내가 행한 행동에 내가 한 생각에 나 스스로가 막히게 됩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나를 괴롭히고 내가 한 행동이 나의 삶의 터전으로부터 허물어갑니다.
이 당시의 아람 사람들은 선민이 아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원천적으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아람의 전략가들이 행하는 모든 분석과 평가와 그것들을 종합한 결론과 작전수립은 다 미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공감을 일으킨 모든 명언들이 이들을 망하게 만드는 망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눈앞에서 치러야할 전쟁에 대해 유일하게 올바른 생각은 오직 전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어느 책에도 없고 어느 전략가의 머리에서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전략가의 머리에서 나와서 그 생각이 적중하여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려는 섭리가운데 그 사람의 생각이 맞았던 것뿐이지 그 사람의 생각 때문에 성공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섭리로 진행이 됩니다. 말씀은 언어이고 섭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언어 안에서 창조되고 언어 안에서 이끌려져 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언어가 나타나는데 그것에 대해 확신하고 공감을 하는데 미신이고 망언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제외하면 참 언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수립했던 전략들이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흐름을 쥐락펴락 하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있습니다. 그 이사회의 의장이 금리를 낮춘다거나 높일 때마다 일차적으로 일본 중국 영국에 변화가 주어지고, 이차적으로 우리나라 이탈리아 독일이 영향을 받아서 경제에 변화가 주어진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탁월한 경제학적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새로운 전략을 짜는데 미신에 불과합니다. 확률 50%의 미신에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의 의견이 다 적중한다면 세상에 경제문제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맞는 것처럼 보이더

라도 결국은 낭패에 봉착하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땅에서 인간들이 전략을 짜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어 속에서 갖고 계신 계획과 뜻을 따라서 섭리해 가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우연히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가까이 접근할 때에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한 것이 맞았다고 착각합니다.
예를 들어 빌 게이츠나 레리 페이지나 마크 주커버크 같은 탁월한 경제인들이 경험담을 책으로 써냅니다. 사람들이 그 책을 사보지만 다 미신이고, 빌게이츠가 말하는 성공담을 따르는 것은 굿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70억 인구 각자에게 다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민에게는 말씀하시고 선민이 아닌 자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70억 인구에게 모두 다른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기계발서나 과학이나 명언도 다 미신이고 나의 삶의 행복의 열쇠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사업을 해야 한다면 그 사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음성이 있으십니다. 비 선민에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 선민에게는 들려주시지 않고 선민인 나에게는 들려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음성으로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만 한다면 우레 소리처럼 여기고 그 음성만을 따르겠다.'라고 기도하만 들리지 않습니다.
당면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다면, 이 땅에서의 상황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사업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마음이 사업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갈멜산에서의 승리가 하나님에 의한 것임에도 그것에 매인 엘리야가 나락으로 떨어졌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사업에 대한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사업과 무관하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쁘기 위해 사업에 추구하는 모든 마음의 에너지를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에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사업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라고 기도해야 하고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믿음이 아닙니다.
자녀 건강 등 무엇이든지 내 마음을 빼앗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다면 무조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이 고백은 선민이 아니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혹시 이 사업이 완전히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뜻이라서 사업은 망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상황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우선 자녀에 대해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자식을 먼저 사랑한 이 죄인이 죽었습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상황이 자녀에게 일어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뜻대로 행해주시옵소서. 다만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때에도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기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본 받아 하나님만이 기쁨임을 고백하오니,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올라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받아들이시는 아버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만족하고 기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적인 기준으로 일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더라도 그 형통을 붙잡는다면 승리의 후유증에 붙잡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또 기도해야 합니다.
'이 승리를 맞이하더라도 승리 자체는 아무런 기쁨이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승리가 내게 주어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승리에 붙잡힐 것이고, 패배와 좌절과 낭패와 불통에 대해서도 고꾸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쁘기를 추구하고 점차적으로 체험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일일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더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속되는 동안에 떠오르는 생각은 십중팔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기쁘기 전에 세상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런 행동은 그 일을 사랑하고 그 대상을 사랑하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행함으로 실수 없이 형통하고 싶다는 세상일에 대한 사랑의 표현일 뿐이지, 하나님께로 가는 온당한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는 어떤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께 그 일을 묻기 전에 내가 그 일의 성공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일이 망하더라도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을 하고, 대신에 그 일이 낭패로 주어질 때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마음가짐으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일이 잘 될 때에도 하나님으로 완전히 기뻐함으로서 그 일로 인한 기쁨에 사로잡히는 후유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돈을 벌듯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엄마가 자녀를 일류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처럼 하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삼성과 LG가 흑자 경영을 추구하듯이 하나님을 추구해야 하고, 정당들이 대권을 추구하듯이 하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추구가 없으면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과 기쁨이 없으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잉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지만 미신으로 움직이고, 명언에 공감한다고 하지만 망언을 받아들이고 있을 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차단된 세상의 확신과 신념체계를 따라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